

1987년 6월 항쟁-2008년 광주 촛불 집회 비교해 보니

최루탄- 화염병 공방 사라지고 '평화·축제' 성숙된 시위문화로

1987년 '6월 항쟁'과 21년 후인 2008년 6월 '촛불대행진'은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권력에 비판·저항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주제와 방식·조직·이슈 등에서는 21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깊은 점

▲총체적 반정부 구호 = 21년 전과 지금의 시민들은 '정권 타도'라는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년 만에 '정권타도' 구호가 부활한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올해는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 소통식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점은 21년 전과 닮은 꼴이다.

▲수십만 인파 연일 운집·장기간 시위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광주지역 촛불집회는 10일로 꼭 한 달을 맞았다. 평일 500여명, 주말 1~2천여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운집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87년 6월 항쟁은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으로 불꽃처럼 번졌다. 한 달 이상 매일 수 천, 수만명의 학생·시민들이 금남로와 중앙로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다른 점

▲'5·18 진상규명' 등 민주화 요구 VS 국정 현안 전반 비판 = 6월항쟁의 발단은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에서 비롯됐고, 결정타는 연세대생 이한 열씨가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저류에는 광주 5·18 진상규명이 흐르고 있었다.

촛불집회는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정책, 한반도 대운하 등이 대표적이다.

▲기두시위 VS 축제화미행 = 6월 항쟁은 민주쟁취라는 엄숙한 시대적 화두에서 시작됐고 그만큼 정부와의 투쟁도 치열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즐거움과 흥겨움이 묻어나는 축제 한마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월 항쟁 당시 분노한 시민들은 돌을, 대학생들은 화염병을 들고 '독재타도'를 외쳤다. 경찰은 최루탄과 군화발, 사복경찰로 탄압하는 등 격렬한 폭력의



87년 6월 '독재 타도'와 '5·18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금남로에서 투석과 최루탄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열리고 있는 광주 촛불집회는 87년 '6월항쟁'과 유사점도 많지만 21년의 세월만큼이나 다른 점도 많다. 10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6·10항쟁 21주년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한판 축제를 벌이고 있다. /나문기자 mjna@kwangju.co.kr

현장이었다. 촛불집회는 모두가 웃고 떠드는 문화제와 축제의 장이다. 촛불 집회에는 '고시절회 협상무효'라는 기본 구호가 있지만, 그마저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 내키는 대로 만들어지고 행진도 질서라고는 없는 자유분방 그 자체다. ▲대학생 중심 VS 각계 망라 = 6월 항쟁은 대학생과 재야인사 등 사회운동 조직들이 주축을 이뤄 불을 지폈고, 촛불대행진의 시발점은 종교 교생이라는 차이가 있다. /최원기자 cki@kwangju.co.kr

시민 8만명... 양초 10만개 사용

숫자로 본 광주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주시민들이 밝힌 거리의 촛불이 한 달 이상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첫 촛불을 밝힌 이후 한달동안 거리로 나온 시민 수는 8만명에 이른다. 인원수를 거리로 환산하면 약 40km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동광주 TG~백양사 IC구간과 맞먹는다. 하루 평균 참여 인원 수는 2천 666명이며, 하루 최대 참여 인원은 6·10항쟁 21주년인 지난 10일 3만명(주최측 5만명, 경찰 추산 1만8천명), 참여 단체도 여성·문화·노동·농민·학생단체 등 200개 단체에 달한다.

촛불집회에 사용된 양초와 종이집은 각각 10만개가 쓰였다. 비용은 양초 1천583만원, 종이컵 158만원으로 모두 1천741만원이 들었다.

촛불집회 1회 개최 비용은 대략 100만~150만원 정도며, 비용 대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모인 돈은 2천300여만원.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지난 10일에는 4시간만에 800만원이 걸렸다. 지난 한 달 동안 촛불집회에 쓰인 비용은 모두 4천만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꼬집는 '자유발언' 참여 수는 하루 평균 13명, 그동안 390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자유발언' 시간은 평균 3분, 모두 1천 170분이 소요됐다.

자유발언자 중 가장 최연소는 8살, 최고령은 60대 남성이었다. 하지만 남녀노소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타는 한결 같았다. /이종행기자 golee@

촛불집회 참가 인원 누가 맞아

경찰-주최측 최고 10배 차이

경찰과 집회 주최측의 촛불집회 참가 추정숫자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배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관련, 광주 촛불집회 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지난 10일 양측간 참가자 수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찰은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1만8천여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주최측인 '광주·전남비상사회의'는 5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차이는 무려 2.7배. 지난달 10일 광주에서 촛불집회 개최를 시작한 이후 양측간 추산 참가자 수가 초기에는 1.5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이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가 광주 YMCA 앞에서 광주 카톨릭센터까지 가득 메워질 경우 2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날은 촛불 때문에 시위자간 거리 격차가 있었고 중간 지점도 어느 배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비상사회의의 준비한 촛불 4만개가 전부 동이 났고 일부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의 경우 직접 촛불을 켜켜온 점 등을 이유로 5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열린 서울 촛불집회의 참가 인원 추산치는 더 벌어진다. 경찰은 참가자를 8만명으로 추정한 반면, 주최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70만명으로 집계했다.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집회 참여 독려 공무원 행안부, 검찰 고발키로

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자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등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529)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자택 및 상업용업

공업용 가위 이용 상습 차량털이

○공업용 가위를 이용해 잠긴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걸렸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 2006년 11월21일께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입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유모(여·30)씨의 승용차 문을 공업용 가위로 열고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김씨가 훔친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화한 끝에 잠복 후 검거했으며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2년 전에 부도가 나진 빚 1억여원을 갚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해피투게더 4050싱글열차. 행복을 소금 송이버섯과 함께. 527-3388. KOBAL. (주)한국비행기. (주)한국항공. (주)한국항공. (주)한국항공.

국바다 농수탕. 맛있게 먹는 국바다 농수탕. 515-3339-40. 국바다 농수탕. 국바다 농수탕. 국바다 농수탕.